

민주 '김건희 통화'에 "최순실 시즌2" 맹공...무속 논란 재점화

윤 캠프 구성 직접 관여 인정

"내가 정권 잡으면..." 아주 천박

조국 "김씨, 수사방향 관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은 1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육성 공개에 "최순실 시즌2", "윤석열 꼭두각시"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맹공에 나섰다. 특히 윤 후보 부부와 친분이 있다는 무속인이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업무 전반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부각하며 무속 논란 재점화를 시도했다.

민주당 측은 공식 직함도 없는 김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하던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선 후보가 된 최근까지 남편을 뒤에서 좌지우지했다는 식의 공세를 폈다. 이 과정에서 김씨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 씨에 빗댄다.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에서 "윤 후보를 커튼 뒤에서 조종하는 김건희씨는 마구 내지르는 최순실보다 훨씬 은근하고 영악하다"며 "보수 정당이 다시 한 여인에 의해 완벽하게 접수되어 선거를 조종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거대책위원회의 현근택 대변인은 CBS라디오에서 "캠프 구

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김건희 씨) 본인이 인정했다"며 "최순실(을 보는 듯한) 기시감이 든다. 최순실 시즌2 아니냐(는 생각)"고 지적했다.

김씨의 '7시간 통화'에서 언급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사자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건희 씨는 (조국) 수사의 방향 전환에 대해 최소한 알고 있었고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TBS라디오에 출연한 이상호 의원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가 이날 추가로 공개한 녹취본에 김 씨가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라고 말하는 대목이나 온다며 "굉장히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씨가 "아주 천박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최민희 전 의원도 SNS에서 "어차피 김건희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인생, 오늘부터 더 정확하게 더 세계 방송도론하러"며 "무엇보다 김건희 대통령 되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의 꼭두각시가 아니길 바란다"며 "김건희 씨가 선거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에서 나아가 윤석열 후보를 대신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전공 스승, 손바닥 '왕(王)'자 등으로 여러 차례 곤욕을 치른 윤 후보에게 다시금 '무속 프레임'을 씌우려는 언급도 이어졌다. 특히 윤 후보 선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남궁선 이대서울병원 심장혈관중환자실 주임간호사(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책본부에 몸담고 있다고 보도된 '건진법사' 전모씨와 관계를 해명하라고 윤 후보를 압박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장 선거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 나를 위해, 부산을 위해, 뒤로 아니라, 앞으로. 다시 주술의, 무속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

명 대선 후보를 띄우면서 '주술', '무속' 등을 빗대 윤 후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건희 통화' 한숨 돌린 국민의힘 정면 돌파 나서

'선거용 흡집내기' 규정 엄호

이재명 의혹 파헤치기 주력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논란을 '선거용 흡집내기'로 규정하며 엄호 태세를 이어갔다.

전날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된 통화 내용과 여론 반응을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면 돌파'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육성 공개에 따른 이미지 타격이나 MBC 후속 보도 등을 고려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여론을 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해자는 신중한 모습이 읽힌다.

국민의힘의 전략은 '투트랙'으로 읽힌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역공'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 씨 녹취록 보도 경위에 대해 "무도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권 본부장은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친여 매체가 불법 녹음한 후보 배우자의 사적 대화 내용을 MBC에서 방송했다. 매우 악질적 정치공작"이라며, 이를 "민주당은 선거판의 분위기를 타락시켜서 국민에게 정치 염증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연결 지었다.

국민의힘은 종일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파헤치기'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를 두고 "피는 피로 씻는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당 대변인단은 이날 이른바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시리즈를 시작한다며 '희대의 포퓰리

스트,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책을 꺼내 들었다.

이 후보를 향해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나' 한때 일베를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등 책 내용을 인용해 공개 질문을 던졌다.

오후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주재로 '당 대장동비리'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씨 언행 자체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이어졌다. 원희룡 선대본부장 정책본부장은 YTN 라디오에서 김 씨의 '경선 관여' 논란에 대해 "후보의 가족이나 부인이 그 정도 안하는 캠프가 어디 있나"라며 반문했다.

김근식 전 선대위 비전전략실장은 CBS 라디오에 나와 "킬크리시 이야기도 나오고, 의혹이 오히려 해소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시정자 반응을 벌여 세평을 전했다. /연합뉴스

安, 김건희 통화 보도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

"소상공인 지원 본예산 항목 조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7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보도에 대해 "그건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복지국가실천연대 초청 대선 후

보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MBC의 김씨 통화 녹취 보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안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안일화(안철수로 단일화한다)'를 언급한 것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안일화라는 이야기가 시중에 돈다는 말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올해 607조원 규모 본예산 항목을 조정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면서 "1월에 추경을 새롭게 해서 국채를 새롭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올해 사업 중에서 구조조정이 가능한 것들을 다 점검하고 신속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1월 추경'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연합뉴스

"늦어도 2월 임시국회 처리"...당정, 추경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7일 당정협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늦어도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적어도 다음 달 3일에 임시국회를 열어 14일 전후로 추경안을 처리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감안해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이번 주중 14의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게 기획

재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4의원보다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 지급액 300만원을 각각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두툼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논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심상정 "대선서 정의당 재신임 구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7일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께 심상정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세대의 진보가 심상정의 20년을 믿고 당당히 미래정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깊어지는 불평등과 공고화하는 기득권 앞에서 정의당의 역할은 더 절실해지고 있다"라며 "그 길이 아무리 고되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앞서 심 후보는 지난 12일 저녁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집거에 들어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까지 떨어지는 등 대선 국면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배경으로 풀이됐다.

심 후보는 다섯 만에 낸 정식 복귀 메시지를 통해 "제가 선거운동 일정을 중단한 것은 단순한 지지 때문이 아니다. 선거운동을 하며 저와 정의당이 맞잡아야 할 시민의 마음이 아득히 멀게 느껴졌다"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변화해야 하는지 침묵 속에서 깊이 성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h3>경매교육 [특수전문반]</h3> <p>기초반, 중급반</p>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h3>신축원룸매매(신축)</h3>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 9억</p> <p>급매가 ->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p> <p>● 월수익 750만</p> <p>● 년수익 9000만</p> <p>●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p> <p>★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h1>010-6670-9800</h1>			